



## 기타주요정보

### 미국, 타이어연령 표시 관련 법제화 움직임

최근 미국 일부 주에서는 타이어 판매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타이어연령의 통지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타이어 연령이나 사용연한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사안으로, 현재 법제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한 상황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하여 뉴저지, 뉴욕, 하와이의 주 의원들은 최근 타이어 판매상들이 타이어의 연령을 표시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를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애당초 두 개의 법안을 만들어 법제화를 추진하였는데, 그 중 AB 496 법안은 주요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5월 31일 주의회 하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동 496 법안의 내용을 보면, 타이어 판매상은 타이어의 연령, 즉 생산된 지 얼마가 된 제품인지를 판매 문서상의 서면정보를 타이어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구매자들은 타이어 연령 정보를 통지받았다는 서명표시를 하게 된다. 타이어 판매상들은 동 문서를 판매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미준수시에는 250불의 과태료가 징수된다.

상기 캘리포니아 법안에 대하여 미국고무협회(RMA)와 미국타이어협회(TIA)는 반대 입장과 함께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특히 동 법안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의 뒷받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권한 부여에 있어서도 타이어 연령 정보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에 대하여 타이어 판매상은 타이어 연령 정보를 통지하였더라도 명시적이지 않으면 그 사실을 소송상의 변호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타이어 판매상과 소비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판매상에 대한 소송 건수만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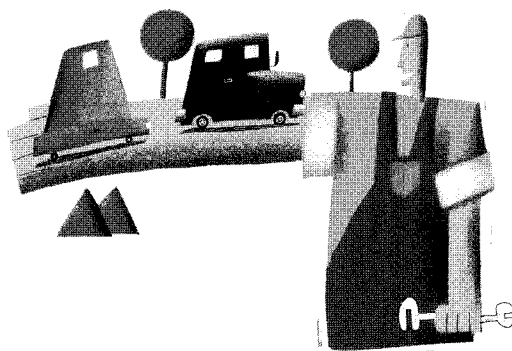
타이어 연령 관련 법제화는 뉴욕, 하와이, 그리고 뉴저지 주에서도 추진되고 있는데, 뉴욕 주의 관련 법안인 A05298에서는 제조일자가 타이어 양면에 알기 쉽게 각인되어 있지 않는 타이어를 뉴욕 주 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위반 시 건수당 500불까지의 벌금 징수도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일로부터 6년 이상 된 타이어의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하는 하와이 주의 SB 1064 법안은 지난 2월 20일 상원의 '수송, 국제 및 주정부 관계 위원회(Transportation, International and Inter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를 통과하였고, 뉴저지 주에서는 타이어 판매상의 타이어 연령 통보에 대한 기준 설정에 대한 의견서를 수집, 검토하여 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다.

각주의 관련 법제화의 향방이 주목되는 가운데, 오래되고 안전의 저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 타이어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해야한다는 관련 법안들의 선한 취지가 사회 현실에 적합하고 바람직하게 법으로 시현되기 위해서는 타이어 및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미국「Rubber & Plastics News」,09.4.20, 5.18, 「Tire Business」,09.4.27)



## 일본, '타이어 공기압 감시시스템' 장착 의무화 검토

타이어의 상태를 차량 계기판에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타이어공기압감시시스템(TPMS). 미국에서는 이미 07년부터 TPMS를 차량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유럽지역도 2012년부터 법제화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본도 승용차의 TPMS 장착 의무화를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일본에서의 TPMS 시장도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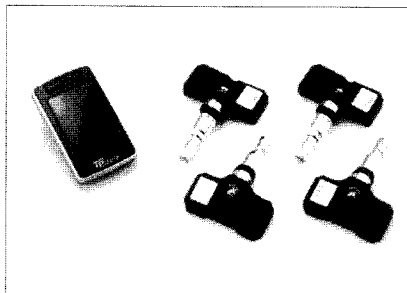
### 1. 일본의 타이어공기압감시시스템 시장동향

일본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과 자동차관련 단체는 새로 출시되는 승용차에 타이어공기압감시시스템(TPMS, Tire Pressure Measurement System) 부착을 의무화할 것을 검토 중이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일정 이상 감소하면 경고하는 구조로, 안전은 물론 연비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TPMS는 4개 타이어 내부에 센서를 설치해 공기압을 검지하거나 ABS를 사용하여 차량속도에서 공기압을 추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타이어는 일정한 공기압으로 주행하는 것으로 연비가 향상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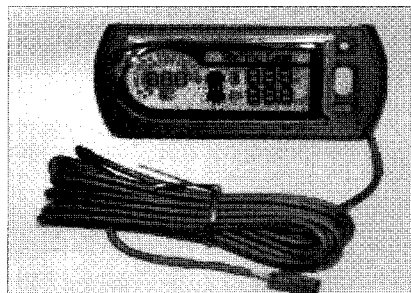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 일본자동차타이어협회, 일본자동차공업회는 올 1월에 '저연비타이어 등 보급촉진 협의회'를 설치하여 타이어 연비성능에 관한 측정방법이나 성능표시법과 함께 향후 동 협의회에서 TPMS 장착 의무화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미 TPMS는 미국에서 신차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고, 유럽에서도 2012년 전후로 의무화될 방침으로 UN유럽경제위원회의 자동차기준조화 세계 포럼에서 국제기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서 일본에서도 이에 대응 중이다.

〈 현재 일본 AS시장에 시판 중인 TPMS 상품 예(직접식) 〉



TP Checker 글로벌 모델  
가격 : 5만 2,500엔  
(자료원 : TP Checker 홈페이지)



Techno Gear TPMS  
가격 : 8,900엔  
(자료원 : kakaku.com)

단, TPMS의 효과는 주행조건에 따라 상이하고 일본의 타이어 공기압의 부적정 현황도 검토사항에 포함되는데, 일본자동차타이어협회에서 실시한 08년 타이어 검사에서는 타이어 불량 사항 중 공기압 부적정 현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결과는 경제산업성 등으로 보고 된다. 한편, TPMS 가격도 1만~5만 엔 정도로, 연비 면에서 비용대비 효과를 명확히 해야 하는 등 선결과제가 있다.

## 2. TPMS 세계시장규모 및 일본의 수입 동향

07년 9월 이후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에 장착의무가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TPMS의 장착대수가 확대되고 있는데, 북미시장의 07년 시장 판매대수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375만 6,000대이며, 07년 말 시점의 장착률은 85.1%에 달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 있어서 01년부터 07년까지의 TPMS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57.5%이다. 세계 시장에서 TPMS의 장착대수는 06년 782만 5,700대였으나, 07년에는 93.7% 증가한 1,516만 1,000대를 기록하였다. TPMS 센서모듈은 세계적으로 6,064만 4,000개의 시장규모이며, 세계시장에서 01년부터 07년까지의 연 평균 성장률은 52.2%이다. TPMS 전체 중 지역별 점유 구성비는 미국이 90.73%, 유럽 9.22%, 일본 0.05%이며, 미국시장의 급격한 확대에 의하여 일본과 유럽의 구성비가 저하되고 있으나, 유럽과 일본에서 장착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일본과 유럽의 점유율이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일본의 TPMS 시장은 A/S시장 등에 의존해 온 소규모 시장규모이며, 전기식 압력 측정·검사기(HS Code 9026.20000)의 경우 08년 일본 수

입은 영국, 독일, 스위스를 주요 수입시장으로 하여 총 약 59억엔 규모를 나타내었다.

'저연비 타이어 등 보급촉진 협의회'를 주관하는 일본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자동차과 인터뷰(3월 4일) 결과에 의하면 TPMS 의무화와 관련된 검토는 개시된 상태로 단기간에 발표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장동향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의무화가 결정되었어도 일본의 자동차시장 환경의 상이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필수적인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는 향후 수개월 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용품 안전법 등 일본 내부규제에 대한 사전검토, 고급차종을 중심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A/S시장 진출을 통한 사전 시장적응 등, 향후 진행현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자료 : KOTRA 나고야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09,3,4)) K

